



훈련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3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전을 앞두고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KFA 제공)

벤투호, 일단 이란·UAE전 이기고 봐야 하는 이유는?

FIFA 랭킹으로 포트 배정 후, 월드컵 본선 조 추첨 상위 포트 가야 랭킹 낮은 국가와 대결 가능성 높아
29위 한국, 3번 포트 기대...이란 21위·일본 23위

“월드컵 최종예선을 최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점 3을 따내 조 1위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4일 이란, 2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10차전을 치른다.
이미 이란(승점 22)에 이어 최소 A조 2위를

확보한 한국(6승2무 승점 20)은 남은 2연전 결과와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다.
하지만 2승을 거둬 조 1위에 올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본 무대인 월드컵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23일 FIFA가 내놓은 카타르월드컵 조 추첨 방식에 따르면, 월드컵 본선 진출국 32개국을 네 포트에 나눠 각 포트에 8개국씩 배정하고,

포트별로 추첨해 4개국씩 8개조를 편성한다.
2018 러시아월드컵의 조 추첨 방식과 동일하다. 포트를 구분하는 기준은 FIFA 랭킹으로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3월 랭킹이 적용된다. FIFA 랭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국가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1번 포트에는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본선 진출국 중 FIFA 랭킹 상위 7개국이 속한다. 랭킹 순위가 8번째로 높은 국가부터 15번째까지는 2번 포트에, 16~23번째는 3번 포트에 지리한다. 마지막 4번 포트에는 랭킹 24~28번째 5개국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합류하는 2개국(아시아·남미·북중미·오세아니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6월로 연기된 유럽 플레이오프 1개국이 속한다.

15개국이 본선 진출을 확정된 가운데 한국의 2월 랭킹은 29위. 개최국 카타르(52위)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보다 높다.
2연전 결과에 따라 랭킹과 포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본선 진출국 랭킹의 영향을 받는다. 일단 이란, UAE를 꺾고 자력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배정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6월로 연기된 유럽 플레이오프 그룹에서 1개국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여기서 후보인 웨일스(20위), 우크라이나(27위)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4번 포트 배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벤투호로서 3번 포트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본선 진출국도 정해지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세네갈(18위), 모로코(24위)가 한국보다 순위가 높아 둘의 합류 여

부가 포트 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번 포트로 간다고 무조건 꽃집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FIFA 랭킹으로는 상위 포트에 배정받아야 할 국가가 플레이오프를 거쳐 4번 포트에 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함께 본선행을 확정할 이란은 2월 랭킹 기준으로 21위, B조에서 본선 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23위다. 일본까지 본선에 갈 경우, 이들은 한국보다 3번 포트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 추첨은 이달 31일 랭킹 발표 이후인 4월 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다.
한편,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의 기준 랭킹은 62위였다. 4번 포트에 배정되면서 강호 독일, 스웨덴, 멕시코를 상대했다.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 “구속은 만족, 불넷은 아쉬워”

3년만에 나선 KBO리그 시범경기서 2이닝 4K 1실점...“모두들 야구장에서 즐거웠으면”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KBO리그 SSG랜더스와 LG트윈스 시범경기, 6회초 SSG 김광현이 역투하고 있다.

KBO리그 복귀 후 첫 시범경기 등판을 마친 김광현(34·SSG 랜더스)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실에 들어오면서 “우와, 많이 오셨네요”라며 탄성을 내질렀다.
3년 만에 KBO리그 시범경기에 나선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취재진 때문이다.
김광현은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LG 트윈스와 2022 신한은행 솔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6회초 선발 이반 노바의 뒤를 이어 구원 등판, 2이닝 2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쳤다.
2019시즌을 마친 뒤 미국에 진출해 2년간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김광현이 인천 SSG랜더스필드 마운드에 서는 것은 2019년 10월 14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이후 890일 만이다.
KBO리그 시범경기에 나선 것은 2019년 3월 12일 KIA 타이거즈전 이후 약 3년 만이다.

지난 8일 역대 계약 규모 1위에 해당하는 4년 총액 151억원(연봉 131억원·옵션 20억원)에 SSG와 계약한 김광현은 이날 처음으로 SSG 유니폼을 입고 실전 마운드에 섰다.
당초 투구수 40개를 계획했던 김광현은 27개의 공만 던졌다. 이 중 스트라이크는 19개였고, 삼진 4개를 숙여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0km, 평균 구속은 147km였다. 불넷은 1개만 내렸다.
이날 김광현을 보기 위해 50명에 달하는 취재진이 몰렸다. 인터뷰실도 꽉 들어찼다. 김광현은 “한국시리즈 같네요”라고 활짝 웃으며 인터뷰실로 들어섰다.
김광현은 “몸을 끌어올리는 단계였다. 지난해 허리 부상도 있었는데, 지금 아픈 곳 없이 몸 상태가 깔끔한 것이 가장 좋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3이닝, 50~6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 다녀온 후 투구 템포가 다소 빨라졌다는 소리를 듣는 김광현은 “다들 빨리 되근하셔야하지 않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템포를 빨리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든다”고 농담을 한 뒤 “미국에서 뛰면서 더 빨라진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속에 만족한다”는 김광현은 “LG에 윈 손 타자가 많아 체인지업을 많이 연습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던진 체인지업이 잘 먹혔다. 스트라이크가 많았던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송찬익에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은 후 서건창에 스트레이트 불넷을 내준 장면을 꼽았다.
김광현은 “훈련을 맞은 후 스트레이트 불넷을 내준 것이 가장 아쉬웠다. 시즌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몸 상태가 “80~90% 정도”라고 소개한 김광현은 “구속이 더 나올지는 장담을 못 하겠다. 구속이 더 나오면 좋겠어. 느낌 상으로는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백리에서 뛰는 2년 동안 구속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김광현은 “부상이 있지 않은 한 구속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트레이너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다. 현재 SSG 1군에 트레이닝 코치님만 5분이 계신다. 케어를 잘 받다보니 금방 좋아지더라. 아직 어린 것 같다”며 한껏 웃어보였다.
김광현은 “야구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훈련을 맞고 했지만, 팬들이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다”며 “후배들이 야구를 하면서 직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담도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팬들도, 취재진도, 선수들도 모두 즐겁게 야구장에 왔으면 좋겠다”는 김광현의 이날 인터뷰도 시종일관 유쾌했다.

‘동계체전 5관왕’ 화순초 조다은...꿈나무 특별상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했던 전남 화순초 조다은이 ‘꿈나무상’을 수상했다.
전남체육회는 서울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시상식에서 조다은이 대회 꿈나무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다은은 이번 동계체전에서 크로스컨트리 여자 13세 이하부에 출전해 클래식 3km, 프리 4km, 복합 6km, 계주, 스프린트 0.7km에서 금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
조다은은 지난 2020년 제101회 동계체전에서도 4학년의 나이로 첫 출전에 3관왕을 달성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4명의 5관왕 선수 중 가장 어려 앞으로 한국 크로스컨트리를 이끌 어갈 차세대 꿈나무로 주목받고 있다.
또 꿈나무상은 이번 동계체전 종합 시상식에 없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꿈나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상으로 마련됐으며 컬링에서 만 9세에 금메달을 수확한 김슬(의정부 송산초)과 더불어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폐회식에 없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꿈나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상으로 마련됐으며 컬링에서 만 9세에 금메달을 수확한 김슬(의정부 송산초)과 더불어 수상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류현진, 26일 DET 상대로 시범경기 첫 등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마침내 실전에 선을 보인다.
23일(한국시간)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26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격한다.
SB네이션에서 토론토 소식을 다루는 블루버드밴더는 류현진과 아담 심버가 디트로이트전에서 시즌 첫 시범경기 투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토에서의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류현진은 메이저리그(MLB) 직장폐쇄로 예년과 조금 다른 겨울을 보냈다. 10월 초 귀국한 류현진은 1월 말 또는 2월 초 미국으로 떠나는 일정 대신 국내에 계속 머무르며 몸을 만들었다.
친정팀 한화 이글스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류현진은 극적 노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연습용 공을 던지고 있다.

협상 타결이 전해진 지 사흘 만인 지난 1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20일 스프링캠프 합류 후 첫 라이브 피칭을 실시한 류현진은 디트로이트 타선을 대상으로 구위를 점검한다.